

## 제6계명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2)

- 읽을 말씀 마 5:21-26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유대교가 제6계명을 어떻게 잘못 가르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은 내용과, 원망 들을 만한 자들과 화해해야 할 필요성 및 긴급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②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바로잡으셨는가?

마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랍비들은 율법의 계명들의 문자를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 계명들의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22절에 분명히 나오는데, 살인 행위뿐 아니라 화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용의 교수님은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구약의 율법은 살인 행위 자체를 정죄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취적 가르침은 살인 행위의 이면으로 들어가서, 살인 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분노와 그로 말미암은 욕설까지 문제 삼는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노와 사소한 욕설까지도 제자에게는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 요건이 된다고 단호히 선언하신다” 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분노와 욕설도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우리와 무관한 죄가 아니며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지옥 불에 던져질 정도로 크고 심각한 죄입니다.

한편, 22절을 보면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표현이 점점 강해지는 것에 대해 「TVP성경난제주석」에서는 “형제를 모욕하는 것은 그에게 분노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와 반대로 동등한 심판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의 두 가지는 이 땅에서 실행되지 않으므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일까요? 먼저, ‘심판을 받는다’ 는 것은 세상에서는 분노했다고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심판받을 죄다, 그 다음 ‘공회에 잡혀간다’ 는 것은 라가라 하는 것도 사소한 죄가 아니라 심각한 죄다, 그 다음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 는 것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지옥 불에 던져질 정도로 큰 죄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죄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큰 죄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만드는 죄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 다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죄들입니다. 이 구절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 욕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라가’ 는 ‘골빈 놈’ 에 해당하는 욕입니다. 골빈 놈이나 미련한 놈이나 두 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가’ 라 하면 공회에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고, ‘미련한 놈’ 이라 하면 지옥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둘째, 세 가지 다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세 가지 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셋 다 주님이 보실 때는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셋 다 6계명을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셋 다 ‘더 나은 의’ 와 관련 있습니다. 더 나은 의는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정신을 지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셋 다 6계명의 정신을 보여준 것으로, 어느 것을 범하든 더 나은 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넷째, 바울도 분내면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노하는 것’ 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욕하는 자들뿐 아니라 노하는 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갈 5:19-21).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 모두 지옥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내는 자나 모욕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갈 5:19-21, 고전 6:9-10).

또한, 예수님이 22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살인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데, 그 미움에서 분노와 욕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요일 3:15)**” 라는 말씀과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요일 3:15).”라는 말씀처럼 그런 자들이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 역시 마땅한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욕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죄가 아니라 제6계명을 범하는 살인죄인 것입니다.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면 지옥 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죄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 ③ 형제와 화해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

마 5:23-24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도날드 해그너는 이 구절에 대해 「WBC마태복음 주석(상)」에서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형제’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화내거나 욕을 해서 형제에게 원망을 산 일이 생각나면 가서 반드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형제의 원망을 사고 있는 상태로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예배나 예물이 아닙니다. 형제와 사화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린다고 우리의 죄가 무마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반드시 사화하여, 버림받지 말고 들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④ 다른 사람과 화해해야 할 긴급성을 보여주는 예

마 5:25-26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 대해 많은 주석가들은 죄인이 처한 심각한 위험과 회개의 절박한 필요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본문을 비유가 아니라 사실적인 조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것이 비유냐 조언이냐가 아니고 이것을 말씀하신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23-24절의 제단에 간 사람의 예는 화해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25-26절의 법정으로 가는 사람의 예는 화해를 긴급히 해야 할 절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든 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22절을 근거해서 주어진 예로서, 요점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속히 사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거나 욕을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속히 사화해야 합니다. 그것을 뒤로 미루다 영원히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욕에 대해 한마디 드리면, 우리는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욕을 금하신 이유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가벼운 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욕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미움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 없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찌다 가벼운 욕을 하는 자까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분노를 다 금한 것이 아닙니다.

아더 핑크는 「산상수훈 강해」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무라시는 것은 단순히 노여움이 아니라 부당하고 무절제한 노여움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모범과 (막 3:5) 사도적 계율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엡 4:26)'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거룩한 분노도 있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을 뿐 아니라 불의에 의분을 느끼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 나눔과 적용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분노하고 욕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화해를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했을 때 경험했던 은혜들을 나누어 봅시다.